

# 學校文法體系論

——學校文法體系的 問題點과 그 試案——

李 吉 鹿

## I. 序 言

(1) 本論은 보다 합리적인 學校文法體系를 수립하기 위한 한 試案的 高찰이다.

文敎部는 1963년 7월 25일 9品詞(지정사도 허용하게 되어 10품사 체계도 인정)와 252개의 用語로 된 學校文法統一案을 확정·공포했다. 그뒤 1967학년도부터는 중학교가, 1968학년도 부터는 고등학교가 각각 새 교육과정(1963. 2. 15 공포)에 의거 교과서가 개편·실시됨에 따라, 文法敎科書도 文敎部制定 學校文法統一案에 준거하여 편찬되었다. 그러나, 文法敎科書의 내용은 9品詞와 10品詞 體系로 갈라져 통일은 이루지 못했고, 그 하위 체계는 더욱 다양한 분류로 나타나 편찬되어 있다. 이로 말미암아 일선 국어 교단의 지도상의 문제점이 그대로 남게 되었고, 辭典編纂 등의 국어 통일상의 문제점도 그대로 안고 있다. 따라서, 國語教育上 및 言語政策上 實用的이고 규범적인 學校文法은 그 體系의 합리적 통일이 보다 더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問題提起가 몇 번 있기는 했으나, 큰 成果는 거두지 못했다. 그것은 상이한 의견은 제시했으나, 止揚의인 진지한 討論이 되지 못했거나 研究調査의 불충분한 데 기인한 것이다. 물론, 國語文法研究史의 짧은에서 온 研究 부족도 있지만, 單語의 규정, 品詞分類의 문제, 文法範疇의 諸般概念에 대한 傳統, 文法的 學說의 提示와 그 討議가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다.

지난 8월 30일에는 中學校 敎育課程이 개정·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1975년도)에 중학교 점인정 교과서가 개편되고 文法敎科書도 새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의 집필에 앞서 學校文法體系의 문제점이 다시 한 번 논의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時點에서

本稿는 그 문제점 제기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데 趣意가 있다.

(2) 學校文法體系의 試案의 摸索은 學校文法の 性格에 그 基底를 두어야 한다. 學校文法은 被教育者가 精確하고 효율적인 言語生活을 할 수 있도록 文法事實을 계획·지도하는 교육 내용이다. 곧, 學校文法은 문법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言語能力을 부여해 주는 데 그 가치가 있으므로, 그것은 規範的이고 實用的인 性格을 가진 教育文法이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 문법의 내용은 어느 文法學者의 학문적인 연구 체계일 수도 없고, 어느 개인의 고집으로 체계화될 수도 없다. 그것은 文法理論家와 文法教育者가 교육적 안목에서 그 실용적인 효용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통일되도록 타협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學校文法體系의 검토와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의 摸索은 다음 세 가지에 準據해야 할 것이다.

① 文法理論의 根據, 즉 학생의 이해 및 實用價値를 손상치 않은 범위 안에서 가급적 文法理論에 맞도록 체계화하고, 또한 자체 체계 안에서의 전후 관계에 모순이 없도록 한다.

② 教育効用上의 根據, 즉 文法理論에 치우쳐 체계의 복잡화가 되거나, 그로 인한 이해의 곤란도가 있을 경우는 가급적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文法理論上 兩立되는 문제점은 체계 자체에 모순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적 효과(이해도와 활용적 가치)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③ 慣用的 根據, 즉 文法體系 또는 文法用語가 일반화되고 관용적인 것은 새로운 文法理論에 얽매이지 않는다.

(3) 本論의 記述方法은 문제점이 되는 14개의 文法事項에 대하여 각기

① 內容分析 ② 問題點 ③ 提案의 순서로 기술한다.

① 內容分析은 1968 학년도부터 개편 실시된 문교부 검인정 인문고등학교용 文法敎科書 13종에 대하여 그 體系의 차이점을 분석해 보고, 문제점이 되는 14개의 문법 사항을 추출했다. 각각 그 항목에 따라 體系의 同一性 및 類似性에 의해 한 類型으로 설정해서 분류했다. 그 末尾에는 참고로 學校文法統一細案(1967. 1. 25 발표한 중학교 문법교과서 저자와 고등학교 문법교과서 집필자 유지 일동으로 작성한 세부 체계 통일 합의 사항; ① 문제점, ② 결정 사항, ③ 교육적 필요성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①은 생략함)을 실었다.

② 問題點은 13종의 교과서에 나타난 文法體系의 分析을 통해서 본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것은 어느 방향으로 통일·지양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③ 提案에 있어서는 위의 과제에 대한 所見을 제시한 것인데, 이것은 견술한 試案 작성의 세 가지 근거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 이론적 근거는 本稿의 규모로 보아 충분히 제시할 수 없었고, 그 요점만 보이기로 했다, 어떤 경우는 이론적 근거에 참고가 되는 문헌을 부기해 놓았다.

(4) 調査分析 對象인 13종의 人文高校 文法教科書는 1969년도 發行에 의한 것이다.

## II. 文法體系的 問題點과 그 提案

### 1. 品詞設定

#### 1. 內容分析

(1) 品詞設定은 ‘이다’의 처리 문제로 말미암아 指定詞系(崔鉉培, 許雄)와 敘述格 助詞系(그외 著者)의 두 類型으로 나뉜다.

(2) 指定詞系인 許雄도 ‘이다’는 한 독립된 문장 성분으로는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補語成分은 설정하지 않고 있다(11. 문장 성분의 종류, 12. 보어의 범위 참조). 그러나, 崔鉉培는 ‘이다’를 한 문장 성분으로 잡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名詞를 補語로 잡고 있다.

#### 2. 問題點

(1) 文教部 學校文法統一案의 내용은 文法術語 252개의 統一과 品詞分類 9品詞의 統一을 기하려고 했으나, ‘이다’의 歸屬問題로 마침내 9品詞(敘述格 助詞系) 設定과 10品詞(指定詞系) 設定으로 갈라졌다.

‘이다’의 품사 귀속 문제는 국어 문법상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오랫동안 文法論爭 거리로 되어 왔다. 그러나, 學校文法에서만은 의견 일치를 보아야 할 성질의 것임에도 助詞와 指定詞의 두 체계로 갈라졌으니, 學校教育上으로나 國語統一政策上으로나 불행한 일이다. 이것은 문법 이론상으로 대립된 것이니, 국어 교육상 그 효용 가치면에서 어느 한 가지로 통일되거나 獨立品詞로 인정하지 말거나, 어느 쪽으로든지 귀결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2) 助詞의 獨立品詞設定의 여부 문제 및 名詞·代名詞·數詞의 體言의 下位分類의 문제는 文法理論上 여러 가지 검토될 바가 많으나, 傳統的 慣例에 따라 그대로 두기로 한다. 그것이 効用的 價値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 3. 提 案

(1) ‘이다’는 獨立品詞로 정립시키지 않는다. ‘이다’는 存在形式으로서 독립된 單語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다’는 두 개의 文法素로 분석하고, 각기 屈曲接辭로 처리한다. ‘이’는 體言의 用言的 機能의 媒介辭, ‘다’는 語尾로 규정하고, 體言과 語尾가 결합할 경우는 반드시 ‘이’의 文法案(體言의 用言態 媒介屈曲接辭)가 媒介的 구실을 해야 가능한 것으로 國語文法 構造를 체계화 한다

cf. 筆者: 體言의 用言的 機能에 대하여(이다의 形態論的 分析) 國語教育 5호 (1969. 12), p. 24~44).

筆者: 國語의 形態分析試論(接辭의 體系的 研究), 한글학회 50돌 기념 논문집 (1971. 12), pp. 155~184.

## 2. 品詞立 歸屬

### 1. 內容分析

① 名詞의 下位分類와 그 歸屬 (1) 名詞의 하위 분류는 대체로 3分法을 취하고 있으나

名詞 { 普通名詞  
固有名詞  
不完全名詞

이를 논리적 개념에 따라 2분하고, 다시 하위로 2分法을 취한 체계.

(제 1 루: 강운호, 최현배, 이을환, 이은정, 강복수, 이민모, 허웅, 이명권, 양주동, 정인승)

名詞 { 쓰이는 범위에 따라 { 普通名詞  
固有名詞  
독립성의 유무에 따라 { 完全名詞  
不完全名詞

〈단 서〉

① 강운호는 보통명사를 다음과 같이 세분해서 분류했다.

普通名詞 { 具象名詞: 사람, 산, 책상  
物質名詞: 나무, 돌, 공기, 물  
抽象名詞: 사랑, 진리, 마음, 진실  
集合名詞: 가족, 인류, 군대, 민족

〈강 운호: 문법, p. 41〉

② 이을환, 이명권, 허웅은 不完全名詞를 아래와 같이 하위 분류했다.

不完全名詞 { 普通不完全名詞 : 이 뿐, 분, 것, 바, 터, 따름  
 副詞性不完全名詞 : 양, 체, 채로, 나름, 때문  
 數量單位不完全名詞 : 치, 말, 되, 원, 켄레, 자루

〈이 명권(이 길록) : 문법, pp. 104~105〉

③ 이 은정은 不完全名詞를 다음과 같이 하위 분류했다.

不完全名詞 { 事物不完全名詞 : 이, 것, 체, 듯, 대로, 양, 줄  
 數量單位不完全名詞 : 말, 흙, 원, 자, 치

〈이 은정 : 우리 문법, pp. 50~51〉

④ 최 현배는 名詞를 「이름씨」, 普通名詞를 「두루이름씨」, 固有名詞를 「홀이름씨」, 完全名詞를 「옹근 이름씨」, 不完全名詞를 「안옹근 이름씨」라고 칭했다.

〈최 현배 : 새로운 말본, pp. 20~21〉

⑤ 정 인승은 다음과 같이 3분했다.

名詞 { 普通名詞 : 사람, 개, 감나무, 손바닥, 나라  
 固有名詞 : 이 순신, 백두산, 지구, 태양, 금성, 신라  
 不完全名詞 : 것, 이, 분, 자, 적, 무렵, 즈음, 데, 쪽

〈정 인승 : 표준 문법, p. 34~35〉

(2) 수량 단위성 불완전 명사를 상위로 올려 4분법을 취한 것도 있다(제Ⅱ류 : 이 승녕).

名詞 { 普通名詞  
 固有名詞  
 不完全名詞  
 單位名詞 : 채, 마리, 벌

(3) 3분법을 취하기는 했으나 不完全名詞 중 數量單位性을 지닌 불완전 명사(섬, 원, 자, 치……)를 數詞의 범주로 처리하여 不完全名詞에서 제외된 것이 있다(제Ⅲ류 : 이 회승·김 민수).

完全名詞

名詞 { 完全名詞 { 普通名詞  
 固有名詞  
 不完全名詞 { 一般性……것, 뿐, 바  
 副詞性……체, 듯, 채로  
 數量單位性……섬, 개, 치, 원

↓  
 名數詞(또는 量數詞)

※ 이 회승은 不完全名詞를 「形式名詞」, 完全名詞를 「實質名詞」라고 칭함.

〈이 회승: 새문법 pp. 28~29〉

※ 單位性不完全名詞를 數詞로 처리하고 이를 量數詞로 취급하고 있다(김민수는 名數詞로 처리하고 있다).

② 代名詞의 下位分類와 그 歸屬 (1) 代名詞의 하위 분류는 대부분의 저자가 크게 2分法(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을 취하고 있으나, 指示代名詞를 다시 2分法으로 세분하고 있다(제 I 류: 이 올환, 김 민수, 강 윤호, 양 주동, 이 승녕, 이 회승, 이 명권).

代名詞 { 人稱代名詞  
          { 指示代名詞 { 處所代名詞  
                          事物代名詞

※ 이 회승, 이 승녕은 지시대명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함.

代名詞 { 人稱代名詞  
          { 處所代名詞  
                  事物代名詞

〈이 승녕: 문법, pp. 76~78〉

(2) 代名詞를 크게 2分法(指示, 人稱)을 취하고 있음은 제 I 류형과 동일하나, 指示代名詞의 하위 분류에 있어서 특히 ‘이쪽, 저쪽’(허 응, 이 인모, 최 현배, 이 은정, 강 복수) 등과 ‘이리, 저리, 그리’를 方向대명사로 취급한 것도 있다(제 II 류: 최 현배, 이 인모, 이 은정, 허 응).

代名詞 { 人稱代名詞  
          { 事物代名詞  
          { 指示代名詞 { 處所代名詞  
                          方向代名詞

※ 허 응은 지시대명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4가지로 분류했다.

代名詞 { 人稱代名詞  
          { 事物代名詞  
          { 處所代名詞  
                  方向代名詞

〈허 응: 표준 문법, pp. 38~40〉

※ 이 인모, 이 은정, 허 응, 최 현배는 ‘이리, 저리, 그리’ 등을 方向代

名詞로 다루고 있는데, 강 복수와 그외 저자들은 副詞로 취급했다. 그러나, 강 복수는 ‘이쪽, 그쪽, 어느쪽’ 등은 方向代名詞로 처리했다.

※ 이 인모와 이 은정은 處所代名詞를 場所代名詞라 함.

(3) 代名詞의 하위 분류에 있어서 2分法(指示, 人稱)을 취함은 제Ⅰ류, 제Ⅱ류와 동일하나, 특히 指示代名詞를 세분함에 있어서 ‘이때, 저때’ 등 끝때에 관한 것(時間代名詞)를 첨가해서 「處所代名詞」와 「事物代名詞」와 더불어 3分法을 취한 체계도 있다(제Ⅲ류:정 인승).

代名詞	{ 人代名詞 (人稱代名詞)  物代名詞 (指示代名詞)	제 1 인칭 : 나, 우리, 저, 저희
		제 2 인칭 : 너, 너희, 자네, 당신, 그대
		제 3 인칭 : 저놈, 그애, 그이, 그분
		물건에 관한 것(事物代名詞) : 이, 이것, 그, 그것
		장소에 관한 것(處所代名詞) : 여기, 저기, 거기, 어디
		때에 관한 것(時間代名詞) : 이때, 그때, 저때
		〈정 인승: 표준 문법, pp. 37~39〉

※ 특히 ‘이-때, 그-때, 저-때’를 시간대명사로 인정했는데, 다른 저자들은 두 개의 품사로 분리, ‘이-때’의 「이」는 관형사, 「때」는 명사로 처리했음.

## 2. 問題點

(1) 名詞의 하위 분류에 있어서 3분법(① 普通名詞 ② 固有名詞 ③ 不完全名詞)을 취하고 있음은 일반적으로 공통되나, 不完全名詞 중 數量單位性을 지닌 ‘마리, 원, 자, 치’ 등의 單語는 두 著者만이 數詞(이 희승→量副詞, 김 민수→名數詞)로 처리하고, 그외 저자가 不完全名詞로 처리하였다(단, 이 승녕은 單位名詞라 했다).

(2)-① ‘이리, 그리, 저리’가 代名詞(방향)로 처리된 것이 4종(이 인모, 이 은정, 허 응, 최 현배)이고, 그외 저자는 副詞로 처리되었다.

(2)-② ‘이쪽, 그쪽, 저쪽, 어느쪽, 어떤쪽’ 등을 한 개의 複合語로 보고, 代名詞(방향)로 처리한 것이 5종(강 복수, 이 인모, 이 은정, 허 응, 최 현배)이고, 그외 저자는 두 개의 品詞(冠形詞+名詞)로 처리되었다.

(2)-③ ‘이때, 그때, 저때’ 등을 한 개의 複合語로 보고, 代名詞(시간)로 처리한 것이 1종(정 인승)이고, 그외 저자는 時間代名詞로 분류되지 않거나 두 개의 品詞(冠形詞+名詞)로 처리되었다.

(3) ‘있다’의 品詞의 歸屬은 李熙昇을 비롯한 대부분의 저자가 形容詞로 처리하였는데, 鄭寅承, 許雄, 金敏洙 등은 動詞로 잡았다.

## 3. 提 案

(1) ‘마리, 원, 자, 치’ 등의 단어는 數詞보다는 名詞로 처리되는 것이 그 修飾關係로 볼 때 타당하다. 數詞는 修飾을 받지 못하나, 數量位性을 가진 單語들은 名詞와 같이 修飾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不完全名詞와 같이 수식하는 말이 앞서지 않고서는 자립할 수 없는 依存形式의 名詞와 같은 범주에 든다. 따라서, 不完全名詞로 처리한다. 수사로 처리함은 意味에 치중된 分類法이다.

(2)-① ‘이리, 그리, 저리’는 ‘여기, 거기, 저기’와는 기능상 차이가 있다. 곧 助詞를 자유롭게 지배할 수 있는 體言으로서의 기능에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부사로 처리한다.

(2)-② ‘이쪽’ 류나 ‘이때’ 류는 두 개의 品詞(冠形詞+名詞)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複合語의 한계와 관련된 문제이나, ‘이것, 그것, 저것’처럼 한 개의 單語로 굳어진 것은 아니고, 學校文法에서는 복잡하게 세분화하는 것(方向, 時間代名詞 등)보다 단순하게 체계화하는 것이 지도상 효과적이므로, 두 개의 단어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3) ‘있다’는 形容詞로 처리한다. ‘있다—없다’는 語形變化上 動詞 또는 形容詞와도 다를 뿐 아니라, 意味上 存在與否의 概念을 지니고 있으므로 종래 存在詞로 처리한 분(李熙昇)도 있다. 그런데, 語形變化上(機能上)으로는 ‘없다’는 形容詞에, ‘있다’는 動詞에 가깝다. 그러나, ‘있다’가 動詞로 처리될 결정적 근거가 없을 바에는 그 意味範圍에 의거해서, ‘있다(계시다)—없다’系를 한 묶음으로 品詞의 처리를 하는 것(形容詞)이 學校文法の 性格上 온당한 方法이라고 생각된다.

## 3. 單語의 構成

## 1. 內容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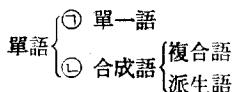
(1) 單語의 構成은 두 개 이상의 自立語로 합성된 複合語와 自立語에 派生接辭가 붙어 이루어진 派生語(꽃+나물, 꽃+답다), 그리고 단순한 한 개의 自立語로 된 單一語(하늘)로 3분법한 類型(제 I 류<A형>: 정 인승, 허 웅, 강 윤호).

單語의 構成 { ① 單一語  
② 複合語  
④ 派生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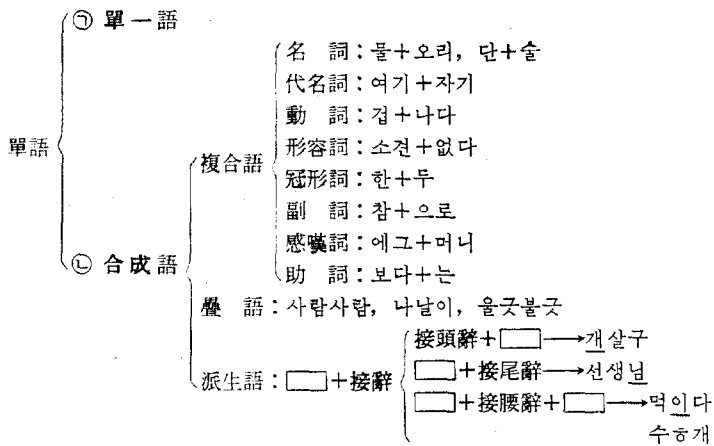
(2) 複合語와 派生語를 合成語로 묶어 2분法을 취한 類型(제 I 류<B형>:



강 복수, 이 인모, 이 은정, 이 명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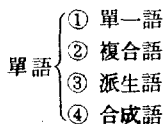
(3) 동시에 제 I 류(B형)와 같으면서 접어를 병립시킨 유형(제 I 류<C형> : 이 희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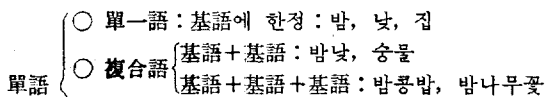
※ 이 희승의 파생어의 설명 중 접요소인 경우와 접어의 예시 중 ‘나날이’를 든 것은 특이한 견해다.

<이 희승: 새문법, pp. 124~126>

(4) 복합어에 다시 파생접사가 붙은 합성어를 따로 세운 4분법을 취한 유형(제 II 류: 이 승녕, 김 민수, 양 주동)



# ① 김 민 수



- 派生語 {
  - 接辭+基語: 막차, 헛수고
  - 基語+接辭: 부엌데기, 절레절
  - 接辭+基語+接辭: 헛손질, 엇셈수
- 合成語 {
  - 複合語+派生語
  - 接辭+基語+基語: 돌배나무, 개꿀맛
  - 基語+基語+接辭: 찢먹이, 군세다
  - 基語+接辭+基語: 닭의장
  - 基語+接辭+基語+接辭: 넘어가다

〈김 민수(이 기문): 표준문법, p. 20〉

## ② 양 주 동

- 單一語: 꽃, 나무, 진달래 (漢字語의 경우: 民族, 學生)
- 複合語: 물발, 눈물 (漢字語의 경우: 生活改善)
- 派生語 {
  - 接頭辭: 개+살구, 덧+문
  - 接尾辭: 농사+꾼, 피+보
  - 漢字語인 경우: 不+可能, 近代+化
- 合成語 {
  - 複合語+接辭: 손바꿈+하다, 날날+이
  - 派生語+實辭: 헝쌀+밥, 첫돌+맛이

〈양 주동(유 목상): 새문법, pp. 28~32〉

(5) 單一語(순수한 單一語와 派生語 포함)와 複合語의 2分法을 취한 유형(계류: 최 현배, 이 을환)

- 單語 {
  - ① 單一語 {
    - 순수한 單一語
    - 派生語
  - ② 複合語

## ① 최 현 배

- 날말 {
  - 홀씨 {
    - 순수한 홀씨: 하늘, 돌, 나무
    - 짜인 홀씨 {
      - 앞가지: 한숨, 맨앞
      - 뒷가지: 나무질, 숨씨
      - 속가지: 잇몸(이스몸)
  - 이름씨: 산수(풍경)
  - 움직씨: 돌아가다(죽다)
  - 그림씨: 소같다(미련하다)
  - 어찌씨: 밤낫(늘)
  - 겹씨 {
    - 가진겹씨: 옛새, 받들다, 맛나다,
    - 줄곧, 여보게
    - 벌린겹씨: 마소, 여기저기, 한돌, 나들다, 검붉다, 한두

※ 최현배는 派生語(한+슴, 슴+씨)를 單一語(홀씨)에 넣은 것이 특이하다.

〈최 현배: 새로운 말본, pp. 103~107〉

## 2. 問題點

(1) 合成語의 개념의 차이로 말미암아 분류의 혼선이 있다.

① 合成語를 複合語와 派生語를 포괄시킨 개념: 제 I 류 B형—강 복수, 이 인로, 이 명권, 이 은정, 제 I 류 C형—이 희승

② 複合語나 派生語에 接辭나 實辭가 붙은 구성(복합어+접사, 파생어+실사): 제 II 류—이 송녕, 김 민수, 양 주동

③ 合成語를 複合語와 동일시한 것: 제 I 류 A형—허 응

(2) 派生語를 單一語(합성된 單一語)로 본 체계도 있다(제 III 류—최 현배, 이 을환).

(3) 이상과 같은 혼선은 造語法에 대한 개념 및 그 用語의 定立이 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이다.

## 3. 提 案

(1) 複合語와 合成語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基語(base)에 屈曲의 接辭(문법적 요소)가 붙은 구성으로 된 단어를 複合語(Complex word)라 하고, 基語끼리 배합된 構成, 또는 單一語끼리 배합된 構成——英語의 動詞 基本型은 單一形態가 될 수 있으나 國語의 動詞 基本型은 두 개의 依存形態素로 된 복합적 구성이다. 그러나, 그것은 單一語의 개념에 넣는 것이 편리하다——을 가진 단어를 合成語(Compound word)로 하는 것이 합당하나, 일반적으로 합성어의 개념(Compounding)을 複合語로 지칭하고 있으니, 관례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 그리고 Complex는 活用語로 부르되, 活用語(먹다, 놀다)는 두 形態素의 複合構成이나 單一語에 소속시킨다.

(2) 派生語는 基語와 派生接辭로 배합된 單語다.

(3) 제 II 류형에서 合成語로 처리된 단어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① 날날이 { 基語+基語+接辭〈김 민수(이 기문)〉  
複合語+接辭 〈양 주동(유 목상)〉

I.C 분석에 의해 ‘날날—이’는 “복합단어+접사”의 구성으로서 派生語로 처리한다.

② 개꿀맛 { 接辭+基語+基語〈김 민수(이 기문)〉  
派生語+接辭 〈양 주동(유 목상)〉



## (3) 제Ⅲ류: 최 현배

- 토 { ㉠ 자리토: 주격, 목적격, 호격, 보격, 관형격, 부사격 (6 격)  
 ㉡ 도움토(보조사)  
 ㉢ 이음토(접속사)  
 ㉣ 느낌토(감탄사)

## (4) 제Ⅳ류: 허 응

- 助詞 { ㉠ 格助詞: 주격, 목적격, 관형격, 호격, 대비격, 위치격, 방편격 (7 격)  
 ㉡ 補助助詞(특수조사)  
 ㉢ 連結助詞(접속조사)  
 ㉣ 문장에만 붙는 조사

## (5) 제Ⅴ류: 강 복수(유 창균)

- 助詞 { ㉠ 補格이 없는 7 격의 格助詞(주격, 관형격, 부사격, 독립격, 접속격, 목적격, 서술격)  
 ㉡ 補助助詞(특수조사)

## (6) 제Ⅵ류: 이 인모

- 助詞 { ㉠ 格助詞(하위 분류는 의미, 기능, 혼성으로 20 격)  
 ㉡ 特殊助詞  
 ㉢ 感嘆助詞

## (7) 제Ⅶ류: 이 은정

- 助詞 { ㉠ 格助詞(특수조사를 부정격으로 격조사에 넣어서 8 격): 주격, 목적격, 서술격, 관형격, 부사격, 공동격, 독립격, 부정격  
 ㉡ 感嘆助詞

※ 제Ⅰ류에서 보격에 해당하는 것은 변성, 인용, 비교격으로 함.

[표 1] 格助詞 分類의 比較

류	격 자	주 격	목 적 격	보 격	서 술 격	관 형 격	부 사 격	독 립 격 (호격)	접 속 격 (공동격)	대 비 격	위 치 격	방 편 격	부 정 격
Ⅰ류	이 회승, 이 송녕 강 윤호, 김 민수 이 율환, 양 주동 .이 명권 (8 격)	○	○	○	○	○	○	○	○	×	×	×	×
Ⅱ류	정 인승 (7 격)	○	○	○	○	○	○	×	○	×	×	×	×

Ⅲ류	최 현배(6 격)	○	○	○	×	○	○	○	×	×	×	×	×
Ⅳ류	허 웅(7 격)	○	○	×	×	○	×	○	×	○	○	○	×
Ⅴ류	강 복수(7 격)	○	○	×	○	○	○	○	○	×	×	×	×
Ⅵ류	이 은정(8 격)	○	○	×	○	○	○	○	○	×	×	×	○
Ⅶ류	이 인모(20 격)	①주 격 ②보충격 ③변성격 ④조 격 ⑤인유격 ⑥자격격 ⑦시발격 ⑧방위격 ⑨처소격 ⑩여 격 ⑪상대격 ⑫탈 격 ⑬공동격 ⑭열거격 ⑮비교격 ⑯인용격 ⑰목적격 ⑱관형격 ⑲호 격 ⑳서술격											

## 2. 問題點

(1) 格助詞의 분류가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종으로 나타났으나, 文의 成分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귀결될 문제이므로, 文의 構成要素 分析이 선행 작업이다

(2) 格助詞 분류의 문제점은

- ① 補格의 설정 및 그 범위
- ② 接續格의 설정 여부
- ③ 敘述格의 인정 여부
- ④ 副詞格의 하위 분류 등으로 지적된다.

(3) 補助詞(특수조사)에서

- ① 終止補助詞의 인정 문제
- ② 感嘆助詞의 인정 등이 문제점이 된다.

## 3. 提 案

(1) 格助詞의 분류는 文成分의 설정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2) 격조사 분류에 있어서는 ① 補語 설정을 전제로 하여 補格을 인정하고, ‘—이(—가), —과(—와), —으로(—로)’까지를 범위로 잡는다.

② 接續格은 文의 成分格으로서의 자격은 없으나, 성분비의 等位格으로 인정한다.

③ 敘述格은 ‘이다’의 귀속 문제가 선결 조건이다. 助詞로의 인정을 전제로 한다면, 敘述格 助詞가 합리적이나, 앞의 ‘品詞設定’의 제안에서 獨立品詞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敘述格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副詞格에 해당하는 助詞를 의미 범주에 의해서 여러 격으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副詞格으로 묶고, 그 종류를 의미상으로 분류하는 것도 조사 사용

법의 교육적 의의가 있다.

(3) 補助詞(특수조사)에서는 ① 終止補助詞를 인정하지 않는다. ‘—읍니다 —요, —읍니다 —그려, —읍니다 —마는’ 등은 文의 終止法에서만 쓰이는 요소이기는 하나, 이것들을 「複合語尾」로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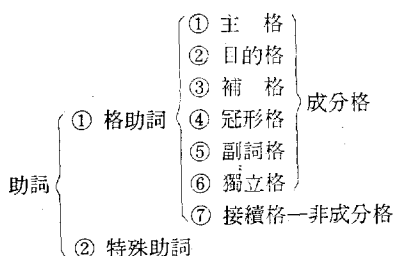
cf. : 국어의 형태 분석 시론, 한글학회 50 돌 기념 논문집, pp. 155~184.

② 感嘆助詞를 설정하지 않고 特殊助詞로 다루되, 의미상 구분을 짓도록 문법 지도상으로 시도한다.

도(특수조사) { a. 그 산에는 사슴도 있다(첨가)  
b. 아! 달도 밝구나(감탄)

③ 特殊助詞는 學校文法 지도상 의미 기능에 중점이 가도록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조사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5) ‘이다’는 品詞設定을 하지 않고, ‘이’를 體言의 用言態 媒介辭로 본다. 文法理論上으로는 이것과 對立體系로서 ‘음’ ‘기’를 用言의 體言態 媒介體로 본다.

## 5. 語尾의 分類

### 1. 內容分析

(1) 하위 분류의 복잡한 細分을 지양하고, 단순하게 4分法을 취한 것이 있고(제Ⅰ류: 이 명권, 현 회승, 이 승녕, 김 민수, 양 주동)

(2) 5分法을 취하여 하위 분류를 종전과는 색다르게 분류한 것(제Ⅱ류: 정 인승).

(3) 종래의 일반적 경향인 3分法을 그대로 답습하여 다시 더 세분해가는 체계(제Ⅲ류)

제Ⅲ류	A형 : 최 현배
	B형 : 이 을환
	C형 : 강 윤호
	D형 : 강 복수
	E형 : 이 은정
	F형 : 이 인모

(4) 그리고, 副詞形을 인정하지 않고 3分法을 취한 체계가 있다(제Ⅳ류 : 허 응).

이상의 分類型을 더욱 세분하고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제Ⅰ류 : 이 명권(A형), 이 희승(B형), 이 승녕(C형), 김 민수(D형), 양 주동(E형)

(1) A형(이 명권)

⑦ 敘述形	1. 終結 敘述形	① 平叙法 : 아이가 우유를 <u>먹는다</u> .
		② 疑問法 : 아이가 우유를 <u>먹느냐</u> ?
		③ 命令法 : 아이야 우유를 <u>먹어라</u> .
		④ 感歎法 : 아이가 우유를 많이 <u>먹는구나</u> !
		⑤ 應諾法 : 오냐, 우유를 <u>먹으</u> 마.
		⑥ 請誘法 : 아이야 우유를 같이 <u>먹자</u> .
	2. 連結 敘述形	① 對等法 { 나열 : 책을 <u>읽고</u> 글씨를 쓴다. 선택 : 공부를 <u>하든지</u> 운동을 하든지 해. 반복 : 구름이 <u>오락가락</u> 한다. 구속 : 네가 가면 나도 가 <u>겠</u> 다. 설명 : 네가 공부하 <u>되</u> , 건강에 조심해라. 방입 : 네가 가 <u>더라도</u> 나는 상관없다. 비교 : 지식인이 <u>그러하거든</u> , 무식자는 말해 무엇하리. 연발 : 집을 나 <u>서자</u> 비가 왔다. 중단 : 글을 읽 <u>다가</u> 그만 두었다. 첨가 : 공부도 하 <u>고</u> <u>뿐더러</u> 운동도 하여라. 익심 : 길은 가 <u>르수록</u> 멀다. 의도 : 나는 설악산에 가 <u>려(고)</u> 한다. 목적 : 나는 공부하 <u>러</u> 도서관에 간다. 도급 : 그는 밤 <u>늦도록</u> 공부하였다.
		② 從屬法 {
⑧ 冠形詞	現在進行 : 책을 <u>보는</u> 사람이 많다. 未來 : 책을 읽 <u>을</u> 사람이 누구냐? 過去 : 밥을 먹 <u>은</u> 사람은 아무도 없다. 過去回想 : 책을 읽 <u>던</u> 사람이 누구냐?	



- ㉔ 副詞形 { 第一副詞 : 그는 평을 잡아 놓았다.  
第二副詞 : 그는 집에 가게 될 것이다.  
第三副詞 : 너는 가진 말고 있어라.  
第四副詞 : 나는 고향에 가고 싶다.
- ㉕ 名詞形 { 第一名詞 : 음식을 많이 먹을은 위장에 해롭다.  
第二名詞 : 혼자 하기가 힘이 든다.

<이 명권(이 길록) : 문법, <pp. 115~117>

## [2] 제Ⅱ류 : 정 인승

- ① 終止形 { 平叙法 : (는)ㄴ다, 더라, (으)리라, (으)오  
疑問法 :느냐, 는가, (으스)비니까, 더냐, (으)라  
命令法 : 어(아)라, 게(은)오, (으)비시다  
請誘法 : 자, 자구나, (으, 스)비시다  
感歎法 : 는구나, 더구나, 는구려, 더구려
- ② 對立形 { 連接對立法 : 고, (으)며, (으)면서, 자마다  
各者對立法 : 든지……든지……거나……거나, (으)락…(으)락
- ③ 副詞形 { 敘述修飾法 : 어(아), 어(아)서, 고서, 는데  
補助接受法 : 어(아), 고, 게, 지, 는가  
引用連結法 : (는)ㄴ다고, 더라고, 느냐고
- ④ 冠形形 { 現在冠形法 : 는  
過去冠形法 : (으)ㄴ  
回想冠形法 : 던  
未來冠形法 : (으)ㄹ  
引用冠形法 : (는)ㄴ다는, (는)ㄴ단, (는)ㄴ달
- ⑤ 名詞形 { 定 法 : (으)ㄴ  
未定法 : 기

<정 인승 : 표준 문법, p. 59>

[3] 제Ⅲ류 : 최 현배(A형), 이 을환(B형), 강 윤호(C형), 강 복수(D형), 이 은정(E형)

### (1) A형(최·현배)

- { 敘述形 : -다, -네, -오, -나이다  
疑問形 : -느냐, -(는)가, -오(-으오), -나йка  
命令形 : -아라(-어라), -게, -오, -소서  
請誘形 : -자, -세, -(비, 음)(시)다

## ① 終止法

- |   |      |                            |
|---|------|----------------------------|
| { | 아주낚춤 | ① 베를 : 고기를 <u>낚는다</u> .    |
|   |      | ② 물음 : 고기를 <u>낚느냐</u> ?    |
|   |      | ③ 시킴 : 고기를 <u>낚아라</u> !    |
|   |      | ④ 이끄는 : 고기를 <u>낚자</u> .    |
|   | 예사낚춤 | ① 베를 : 고기를 <u>낚네</u> .     |
|   |      | ② 물음 : 고기를 <u>낚는가</u> ?    |
|   |      | ③ 시킴 : 고기를 <u>낚게</u> !     |
|   |      | ④ 이끄는 : 고기를 <u>낚세</u> .    |
|   | 예사높임 | ① 베를 : 고기를 <u>낚으오</u> .    |
|   |      | ② 물음 : 고기를 <u>낚으오</u> ?    |
|   |      | ③ 시킴 : 고기를 <u>낚으오</u> !    |
|   |      | ④ 이끄는 : 고기를 <u>낚읍시다</u> .  |
|   | 아주높임 | ① 베를 : 고기를 <u>낚읍시다</u> .   |
|   |      | ② 물음 : 고기를 <u>낚읍니까</u> ?   |
|   |      | ③ 시킴 : 고기를 <u>낚읍시오</u> !   |
|   |      | ④ 이끄는 : 고기를 <u>낚으십시오</u> . |
|   | 반 말  | ① 베를 : 고기를 <u>낚아</u> .     |
|   |      | ② 물음 : 고기를 <u>낚아</u> ?     |
|   |      | ③ 시킴 : 고기를 <u>낚아</u> !     |
|   |      | ④ 이끄는 : 고기를 <u>낚아</u> .    |

## ② 資格法

- |   |     |  |
|---|-----|--|
| { | 副詞形 | ① 아 : 시를 <u>웁어</u> 보아라.                      |
|   |     | ② 게 : 시를 <u>웁게</u> 되었다.                      |
|   |     | ③ 지 : 나쁜 시를 <u>웁지</u> 말라.                    |
|   |     | ④ 고 : 좋은 시를 <u>웁고</u> 싶다.                    |
|   | 冠形形 | ① 는 : 공부를 <u>좋아하는</u> 사람은 성공한다.              |
|   |     | ② (으)ㄴ : 그를 <u>좋아할</u> 사람이 누구요.              |
|   |     | ③ (으)ㄴ : 저이가 학생시대에 운동을 <u>좋아한</u> 사람이다.      |
|   | 名詞形 | ① (으)ㄴ : 사람다운 일을 하고 <u>죽음이</u> <u>웁으니</u> 라. |
|   |     | ② 기 : 더러운 일에 <u>죽기</u> 는 싫어요.                |

## ③ 接續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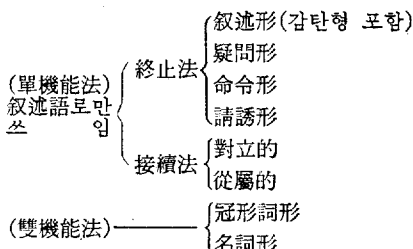
- |   |                               |
|---|-------------------------------|
| { | 구 속 형 : —(으)면, —(으)니, —아야(어야) |
|   | 방 입 형 : —더라도, —(으)ㄴ망정, —아도    |
|   | 병 립 형 : —면서, —며, —고           |
|   | 서 술 형 : —는데, —(으)니            |
|   | 견 중 꼴 : —거든                   |
|   | 가 립 꼴 : —거나, —든지              |
|   | 잇달음꼴 : —자                     |
|   | 그 침 꼴 : —다가                   |
|   | 더보탬꼴 : —(으)ㄴ 뿐더라              |

더해감꼐 : —(으)르수록  
 뜻 함 꼐 : —으려, —고자  
 목 적 꼐 : —(으)러  
 미 칙 꼐 : —도록  
 되꼐이꼐 : —(으)락

〈최 현배 : 새로운 문법, pp. 31~37〉

#### 4 제Ⅳ류 : 허 응

##### 活用形의 분류



※ 副詞形을 인정하지 않고, 접속법에 포괄시켰다. 꼐 쌍기능법(자격법)에 넣지 않고 단기능법에 넣었다.

〈허 응 : 표준 문법, pp. 61~71〉

##### ① 한 성분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용언

나는 사람이다. 빨리 가 보아라. 〈보조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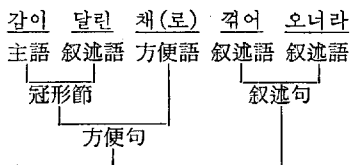
나는 모른 척 했다. 〈보조용언〉

나는 내일을 충실히 할 뿐이다.

낙엽을 풀어 모은다. 〈주용언이라도 긴밀히 녹아 붙은 것〉

〈상계서 : pp. 105~106〉

##### ② 構文圖解에서 (p. 104)도 副詞形을 불인정한 것이 엇보인다.



## 2. 問題點

(1) 終結敘述形(종결법)의 하위 분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대체로 6分法(평서, 의문, 명령, 감탄, 응락, 청유)의 제Ⅰ류형(단, 이 회승은 약속법을 포함해서 7分法으로 함)과 5分法(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의 제Ⅱ류형과 4分法(평서, 의문, 명령, 청유)의 제Ⅲ류형(단, 이 음환, 강 복수는 5分法, 강 음환은 6分法으로 처리)과 제Ⅳ류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2) 連結叙述形(연결법)은 2分法과 14分法의 체계로 나뉘었다.

### (3) 副詞形의 인정 여부 문제

### 3. 提 案

(1) 連結法の 복잡한 하위 분류를 지양하고, 2分法을 취한 제 I 류형의 체계를 채택한다. 그것은 문법적 기능면으로나 학교 문법 지도상 합리성이 있기 때문이다.

(2) 副詞形은 별도로 세우지 않고, 連結叙述形에 依存法으로서 소속시킨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이다. 用言의 副詞形 설정은 성분 분석에서 主用言이 副詞語가 되는 결과가 된다. 형식주의 분석 이론에서는 때때로 單語의 依存形이 文構成의 重要語가 되고, 自立形이 수식적인 附隨語로 분석 결과를 가져온다.

㉠ 그것은 푸른 것이다. ㉡ 나는 먹고 싶다. ㉢ 밥을 먹지 말아라.

主語 冠形語 叙述語      主語 副詞語 叙述語      副詞語 叙述語  
(자립형)(의존형)      (자립형)(의존형)      (자립형)(의존형)

그러나, ㉔, ㉕은 自立形이 依存形에 대하여 副詞語로 기능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표현자의 의미 범주(개념 구조)는 소위 主用言(먹고)에 중심 개념이 있고, 補助用言(싫다)은 중심 개념에 대한 보완이다.

나는 먹고 싶다  
주어 서술어 서술어 (보완)  
서술어

따라서, 主用言과 補助用言으로 성립되는 두 성분은 한 개의 複合的 依存 敘述語로 분석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는 밥을 먹은 체한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서술어  
의 조복한 서술어

※ 단, 지도의 편의상 依存複合敘述語는 複合敘述語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依存複合敘述語의 본질은 派生構成法이다.

cf. 筆者：統辭論，「國語學新講」(1973. 3)，p. 264.

(3) 用言(형용사)이 뚜렷하게 副詞語의 기능을 가질 경우는 그것을 특수하게 副詞形으로 인정한다.

①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② 산이 높게 솟았다.

(4) ‘—어(아)’의 연결 형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기능으로 분석한다.

① 複合語의 구성(對等法 語尾의 變成)

그는 밥을 빌어 먹다

복합어(合一)

② 對等法 語尾(羅列形)

그는 새를 잡아(서) 먹었다 ⑦ 그는 새를 잡았다.

敘述語 敘述語 ⑧ (그리고) 그는 그것을(새를) 먹었다.

複合述敘語(대등관계)

③ 從屬法 語尾(拘束形)

(물이) 날씨가 추워(서) 얼었다.

敘述語 敘述語

복합서술어(종속관계)

날씨가 추워(서) 물이 얼었다.

主語 敘述語 主語 敘述語

부분 主語

④ 依存法 語尾(副詞形)

그는 밥을 먹어 버린다.

敘述語 敘述語

복합서술어(의존 관계)

cf. 서 정수：국어 용언 어미，한글학회 50 돌 기념 논문집(1971. 12)，pp. 201~228.

남 기심：이음씨끝 “—아”를 매개로 한 겹씨의 움직임，한글，146 호(1970. 9)，pp. 311~318.

(5) 어미의 하위 분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I. 終結敘述形
- (1) 平叙法
  - (2) 疑問法
  - (3) 命令法
  - (4) 感歎法

(5) 應諾法

(6) 請誘法

※ 감탄법, 응락법을 평서법에 포괄시킬 수 있으나, 학교 문법의 성격상 문장 종결의 意味의 分類를 고려한 것이다.

- Ⅱ. 連結敘述形 { (1) 依存法 : 그는 밥을 먹어 버린다.  
(2) 對等法 : 그는 새를 잡아서 구워 먹다.  
(3) 從屬法 : 날씨가 추워서 물이 얼다.

- Ⅲ. 冠形形 { (1) 現在 : 읽는 사람  
(2) 過去 : 읽는 사람  
(3) 未來 : 읽을 사람

- Ⅳ. 名詞形 { (1) 제 1 名詞形 : 먹을  
(靜態法)  
(2) 제 2 名詞形 : 먹기  
(動態法)

## § 6. 補助語幹의 限界

### 1. 內容分析

(1) 補助語幹은 尊稱, 謙讓, 時制 등의 接辭만을 補助語幹으로 잡은 유형(제Ⅰ류), 그 외에 이, 히, 기, 리, 우, 구, 추 따위의 使動, 被動, 強勢 등의 接辭도 補助語幹으로 잡은 유형(제Ⅱ류)의 두 가지 체계로 분류된다.

### 2. 問題點

(1) 強勢, 使動, 被動態의 接辭를 補助語幹으로 인정하는 체계(제Ⅱ류)와 인정하지 않는 체계(제Ⅰ류)로 나누어졌다.

(2) 제Ⅰ류(과생접사로 보는 체계)에 있어서도 接尾辭(양주동, 김민수, 이명권)로 보는 견해와 接腰辭(이희승, 이을환)로 보는 견해로 갈라졌고, 제Ⅱ류(보조어간으로 보는 체계)에 있어서도 접미사(이인모)로 보는 견해와 접요사(이을환)로 보는 견해로 갈라졌다.

### 3. 提 案

(1) 強勢, 使動·被動態의 接辭는 派生接辭로 다루고, 補助語幹은 屈曲接辭로 제한한다. 學校文法에서는 接辭의 概念을 派生法에만 국한시켜서 그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보조어간이 굴곡접사로 제한되면, 그것은 오직 文法素로서의 機能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語幹은 意味素인데, 文法素인 이들의 屈曲接辭들을 補助語幹이라 하여 語幹의 一部로 치는 잘못이다. 다만 用語는 慣例대로 쓰기는 하나, 지도상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2) 強勢와 使動, 被動態의 接辭는 派生接腰辭(接中辭)로 보는 것이 국어의 접사체제상 합리적이다. 先語末 接尾辭로도 간주되나 ‘먹-이-다’는 기본형인 ‘먹-다’에 接腰辭 ‘이’가 후행적으로 接中되는 形態方式으로 분석되고, ‘이’는 接尾辭의 개념(일반적으로 폐쇄적 접미사를 지칭하고 있다)과는 거리가 멀어 학생의 이해도에 난점이 있을 것이다. 接腰辭 설정의 이론적 근거는 다음 논문에 제시돼 있다.

필자: 接腰法試論, 강원대학 논문집 5집(1971. 11), pp. 137-147.

필자: 國語의 形態分析試論(접사의 체계적 연구), 한글학회 50돌 기념 논문집(1971. 12), pp. 155-184.

## § 7. 時制의 區分

### 1. 內容分析

(1) 학교문법 통일 세안을 따른 것, 곧 ① 現在, ② 過去, ③ 未來, ④ 大過法, ⑤ 過去未完으로 5分한 體系……………제Ⅰ류

(2) 제Ⅰ류의 시제 구분에다 ‘과거추정(—었겠다)’을 포함한 체계……………제Ⅱ류

(3) 제Ⅱ류 체계의 時制 區分에다 두 단어로 된 복합태 시제까지 포함된 체계……………제Ⅲ류

위의 유형 분류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Ⅰ류: 이희승, 김민수, 이승녕, 양주동, 강복수, 이은정, 이명권

시 제	활용형	서 술 형		관 형 사	
		동 사	형 용 사	동 사	형 용 사
현 재		먹 는 다	맑 다	먹 는	맑 은
미 래		먹 겠 다	맑 겠 다	먹 을	맑 을
과 거		먹 었 다	맑 았 다	먹 은	맑 던
대 과 거		먹 었 었 다	맑 았 었 다	×	×
과 거 미 완				먹 던	×

〈이승녕: 문법, p. 110〉

※ 이명권은 大過去를 過去完了, 過去未完을 過去回想이라고 칭하여 統一案 用語에 따랐고, 過去回想에 敘述形(읽더라)과 過去完了에 冠形形(읽었던). 등을 설정했다.

문교부 제정 문법 용어표에는 大過去, 過去未完의 술어는 없다.

② 제Ⅱ류: 정인승, 허웅, 이인모

(1) A형(정인승)

- ① 過去(먹었다)
- ② 大過去(먹었었다)
- ③ 未來過去(먹겠었다)
- ④ 未來(먹겠다)
- ⑤ 過去推想(먹었겠다)

〈정인승: 표준문법, pp. 274-275〉

※ 위의 ①—⑤는 보조어간으로서 시제 표시로 다루었고, ‘던(회상), 더라(회상), 리라(미래)’ 등은 어미로서 시제를 표시한 것으로 다루었다.

(2) B형(허 웅)

- ① 完 了
  - 먹었다
  - 먹었었다(과거완료)
- ② 未 定
  - 먹겠다
  - 먹었겠지(과거, 또는 완료의 추측)
- ③ 過去回想
  - 먹더라
  - 먹었더라(이미완료, 가정사실)

〈허웅: 표준문법, p. 82〉

(3) C형: 이인모

기본시형		과		거		현		재		미		래	
종류		보		통		시		제		회		상	
		시		제		제		제		제		제	
		먹	었	다	먹	는	다	먹	겠	다	먹	었	더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이인모: 새문법, p. 82〉

※ 위의 기본시형 이외에 진행과 완료시형이 다음과 같이 있다.



## ① 進 行

現在進行: 그는 낚시질을 하는다.過去進行: 그는 낚시질을 하고 있었다.未來進行: 그는 낚시질을 하고 있겠다.

## ② 完 了

現在完了: 이 고기는 방금 낚았다.過去完了: 옛날에는 여기서 임금이 고기를 낚았었다.未來完了: 내년 3월 말까지는 이 건물을 준공하였겠다.

&lt;이인모: 새문법, p. 85&gt;

## (3) 제Ⅲ류: 최현배, 이을환, 강운호

	基 本 時	完 了 時	進 行 時	進 行 完 了 時
현 재	읽 다	읽 었 다	읽고 있다	읽고 있었다
과 거	읽 었 다	읽 었 었 다	읽고 있었다	읽고 있었었다
미 래	읽 겠 다	읽 었 겠 다	읽고 있겠다	읽고 있었겠다

&lt;이을환: 최신문법, p. 65&gt;

※ 複合形態의 시제가 포함되어 있다.

[표 2] 시제 구분의 비교

유형별 시제별	제 I 류	제 II 류			제 III 류
	이회승, 이명권 강복수, 이은정 김민수, 양주동 이승녕	(A형) 정 인 승 허	(B형) 웅 이	(C형) 인 모	최이강 현을운 배환호
현 재	—는다			—는다	—다
과 거 (완료)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현재완료)
미 래 (미정)	—겠다	—겠다	—겠다	—겠다	—겠다
대 과 거 (과거완료)	—었었다	—었었다	—었었다	—었었다	—었었다
과 거 미 완 (과거회상)	—던		—더라 —었더라 (이미완료)	—겠더라 (미래회상) —더라 (현재회상) —었더라 (과거회상)	—던 (현재회상) —었던 (과거회상) —겠던 (미래회상)
과 거 미 래		—겠었다			

두 단 어 로 된 복 합 태	과거 추상 (완료추측)		—었겠다	—었겠다	—었겠다	—었겠다 (미래완료)
	현재 진행					—고 있다
	과거 진행					—고 있었다
	미래 진행					—고 있겠다
	현재 진행 완료					—고 있었다
	과거 진행 완료					—고 있었었다
	미래 진행 완료					—고 있었겠다

## 2. 問題 點

(1) 時制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여 술어상 혼란이 극심하다. 이것은 시간에 대한 의식 구조 해명이 선결 문제일 뿐 아니라, 時制(tense)와 相(aspect)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도 생긴다.

(2) 실제로 쓰이지 않는 체계상 시제와 두 單語로 된 複合態 時制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 3. 提 案

(1) 우리 국어(문법적 시제, grammatical tense)는 논리적 시간 관계(logical time-relation)를 잘 표시하고 있지 못하다. 시제로 취급하고 있는 문법 형태가 오히려 相(동작의 양태—완료 계속 등)의 문법 범주(grammatical category)를 표시하는 쪽에 더 가깝다. 따라서, 相(aspect)의 관점에서 용어를 설정한다.

(2) 두 단어로 된 複合態의 相(aspect)도 문법 범주로 설정한다.

(3) 다음과 같이 時相(aspect)을 분류한다.

### ① 한 단어로 표시

- ① 進行(현재) : —는다 <어미>
- ② 完了(과거) : —었— <보조어간>
- ③ 推定(미래) : —겠—, —라— <보조어간>
- ④ 過去完了(대과거) : —었었— (보조어간, 복합태)
- ⑤ 過去推定(완료추정, 과거미래) : —었겠— <보조어간, 복합태>
- ⑥ 過去回想(과거미완) : —더— <보조어간>

### ② 두 단어로 표시

- ⑦ 現在進行 : —고 있다.

⑧ 進行完了:—고 있었다.

⑨ 進行推定(미래진행):—고 있겠다.

⑩ 進行完了推定(미래 진행완료):—고 있었겠다.

cf. 필자: 통사론, 「國語學新講」(1973. 3.), pp. 256~258.

## § 8. 尊卑法の 等分

### 1. 内容分析

用言의 終結叙述形의 尊卑法(相對待遇法)의 等分은 다음 세 가지 類型으로 분류된다.

#### ① 4等分法…第Ⅰ類(최현배, 이인모, 이명권, 강운호)

	〈최현배〉	〈이인모〉	〈이명권〉	〈강운호〉
① 아주 낮춤(해라)	(—ㄴ다)	(—거라)	(—라)극비대체	
② 예사 낮춤(하계)	(—네)	(—계)	(—계)보통비대체	
③ 예사 높임(하오)	(—오)	(—오)	(—오—비쇼)보통존대체	
④ 아주 높임(합쇼)	(—비니다)	(—비시오)	(—소서)극존대체	
(等外) 반말(해)	(—어/아, —지)	(—아)		

〈최현배 p. 33, 이인모 p. 153, 이명권 p. 163, 강운호 p. 70〉

#### ② 5等分法…第Ⅱ類(이희승, 양주동, 김민수)

〈이희승〉		〈김민수〉
① 해라체	① 하대의 검사법	① 해라: 받는다
② 하계체		② 반말: 받아
③ 하오체		③ 하계: 받네
④ 합쇼체		① 하오: 받오오
⑤ 하소서체	② 공대의 검사법	② {합니다 : 받으니다 하옵니다: 받으옵니다 하나이다 : 받나이다 하옵나이다: 받으옵나이다
〈이희승: p. 98〉		
		〈김민수: p. 75〉

※ 양주동의 분류는 이희승과 같으며, 이희승은 等外로 ‘반말’을 인정함.

③ 兩分法…第Ⅲ類(정인승, 이승녕, 이은정), 尊待(—읍니다)와 非尊待(—ㄴ다)로 兩等分, 또는 그와 類似한 概念으로 等分한 類型

### 2. 問題點

(1) 第Ⅱ類에 있어서 ‘반말’의 等級이 문제된다. ‘하계’의 下位보다는 ‘하

게’와 ‘하오’의 中間에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親近感을 나타내고, 尊卑의 모호성이 있을 경우—

(2) ‘하소서’제는 文語에나 사용하고, 口語에는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다. 이것과 아울러 민주·평등 사상의 보급에 따라 嚴格한 尊卑의 等分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 따라서, 親切感에 따른 ‘반말’의 사용의 빈번, ‘해요(예사 높임)’ ‘하세요(아주 높임)’ 등의 尊待法이 많이 쓰이고 있고, 그 等分の 嚴格性이 해이돼 가고 있으므로, 尊卑法 체계의 再檢討가 필요하다.

### 3. 提 案

(1) 終結敘述形의 尊卑法의 等分은 尊待와 非尊待의 概念(非尊待法은 平交間에도 쓰이므로 下待法의 概念만은 아니다)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4等分(제 I 류형)하고, ‘반말’은 等外로서 尊待와 非尊待의 中間層을 本質로 삼는다.

- ① 非尊待 { ㉠ 해라체(아주 낮춤) : 먹어라  
              ㉡ 하게체(예사 낮춤) : 먹게  
等外——해체(반말) : 먹어(먹지)
- ② 尊待 { ㉢ 하오체(예사 높임) : 먹으오 ※ 먹어요(먹지요)  
          ㉣ 합쇼체(아주 높임) : 가십시오 ※ 가세요

(2) ‘해요’의 尊待等分の 共通 使用化는 嚴格한 等分性的 退化(또는 親近感)現象으로 보이나, 아주 높임에 두루 사용할 수 없다. ‘선생님 먹어요’는 쓸 수 없다. ‘해요’의 ‘두루 높임’說에 대해서는 다음 論文 參照.

cf. 成耆徹 : 國語待遇法研究, 忠北大論文集, 4 輯(1970), p. 45.

## § 9. 不規則用言 分類

### 1. 內容分析

(1) 不規則動詞 11 종(ㄷ, ㄹ, ㅂ, ㅅ, ㅕ, ㄴ, ㄷ, ㅁ, ㅂ, ㅅ, ㅕ)과 不規則形容詞 8 종(ㅎ, ㄹ, ㅂ, ㅅ, ㅕ, ㄴ, ㄷ, ㅁ)을 인정하는 체계…제 I 류 : 이승녕, 이을환, 이인모, 강윤호, 강복수, 이명권, 최현배, 정인승, 양주동, 허웅

① 정인승, 양주동, 허웅 등은 不規則用言의 12 종을 動詞와 形容詞를 묶어서 설명.

② 최현배는 形容詞 ‘ㄴ’ 불규칙을 인정 않음.

③ ‘우’ 不規則用例에 ‘푸다’ 외에 이인모는 ‘부수다’를, 정인승은 ‘복돋우다’를 각각 더 포함시키고 있다.

④ 정인승은 變則과 正則, 이승녕, 양주동, 이희승은 變則과 規則, 최현배는 變格活用과 正格活用으로 각각 用語를 달리 쓰고 있다.

(2) 不規則動詞 8종(ㄷ, ㄹ, ㅂ, ㅅ, ㅕ, ㄴ, ㄹ, ㅇ)과 不規則 形容詞 8종(제Ⅰ류와 같음)을 인정하는 체계…제Ⅱ류: 이희승, 김민수

## 2. 問題點

(1) 不規則形容詞의 종류는 13종의 교과서가 모두 일치하고 있으나, 不規則動詞는 제Ⅰ류형 저자(11명)는 11종으로 나누고, 제Ⅱ류형 저자(이희승, 김민수)는 8종(우, 거라, 너라 제외)으로 나누고 있다.

(2) 不規則과 變則 등으로 用語使用이 일치하고 있지 않다.

## 3. 提 案

(1) 不規則動詞의 종류는 제Ⅰ류형처럼 11종으로 나눈다.

不規則用言 { 不規則動詞: ① ㄷ ② ㄹ ③ ㅂ ④ ㅅ ⑤ ㅕ ⑥ ㄴ ⑦ ㄹ ⑧  
⑨ ㅇ ⑩ 우 ⑪ 거라 ⑫ 너라  
不規則形容詞: ① ㅎ ② ㄷ ③ ㅂ ④ ㅅ ⑤ ㅕ ⑥ ㄴ ⑦ ㄹ  
⑧ ㅇ

‘우’ ‘거라’ ‘너라’를 모두 不規則動詞로 인정함은 이것들이 不規則活用の 개념인 變異形態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곧 語幹이 不規則인 것(① ㄷ→ㄷ ② ㄹ→ㄹ ③ ㅂ→ㅂ/우 ④ ㅅ→ㅅ ⑦ ㄹ→ㄹ ⑧ ㅇ→ㅇ ⑨ 우→ㅇ)은 거의가 音韻的 條件에 의한 非自動的인 個別的 變異形態요(‘먹는다→명는다’는 自動的인 普遍的 變異다). 語尾가 不規則인 것(⑤ ㅕ ⑥ ㄴ ⑩ 거너 ⑪ 너라)은 모두 形態的 條件에 의한 變異形態다(‘아라/어라’는 陰陽音聲의 音韻論的 條件에 의한 變異形態나, ‘거라’는 ‘아’開母音의 特殊語幹의 形態(條件)만이 선택하는 어미다).

(2) 用語 使用은 문교부 통일안대로 ‘규칙’과 ‘불규칙’으로 사용한다.

## 10. 補助用言의 종류

### 1. 內容分析

① 제Ⅰ류: 최현배, 강윤호, 이인모(보조 형용사 7종)

{ 助 動 詞 : 13 종  
補助形容詞 : 6 종

(1) 최현배

{ ㉠ 助 動 詞 : ① 부정 ② 사역 ③ 피동 ④ 진행 ⑤ 완료 ⑥ 섬김(봉사)  
(13 종) ⑦ 해보기(시행) ⑧ 힘줄(강세) ⑨ 마땅함(당위) ⑩ 그리어  
김(시인) ⑪ 거짓부라(가식) ⑫ 지나간 기회 ⑬ 지님(보유)  
㉡ 補助形容詞 : ① 부정 ② 그리어김 ③ 바람 ④ 미룸 ⑤ 값어치 ⑥ 모양  
(6 종)

〈최현배 : 새로운 말본, pp. 49-55〉

(2) 강운호 : 최현배와 동일한 분류

(3) 이인모

{ ㉠ 助 動 詞 : ① 사역 ② 당위 ③ 시인 ④ 가식 ⑤ 부정 ⑥ 보유 ⑦ 종  
결 ⑧ 진행 ⑨ 봉사 ⑩ 시행 ⑪ 강세 ⑫ 피동 ⑬ 과거 기회  
㉡ 補助形容詞 : ① 부정 ② 가치 ③ 진행 ④ 시인 ⑤ 희망 ⑥ 상태 ⑦ 추측  
※ 보조 형용사는 최현배의 분류(6 종)보다 이인모가 “진행”이 더 들어 있

다. 〈이인모 : 새문법, pp. 94-108〉

② 제Ⅱ류 : 이명권, 이을환(조동사 13 종)

{ 助 動 詞 : 12 종  
補助形容詞 : 7 종

(1) 이명권

{ ㉠ 助 動 詞 : ① 피동 ② 사동 ③ 부정 ④ 시인 ⑤ 진행 ⑥ 종결 ⑦ 보  
(12 종) 유 ⑧ 시행 ⑨ 봉사 ⑩ 강세 ⑪ 당위 ⑫ 가식  
㉡ 補助形容詞 : ① 부정 ② 시인 ③ 상태 ④ 희망 ⑤ 추측 ⑥ 가치 ⑦ 과  
(7 종) 거 기회

〈이명권(이길록) : 문법, pp. 124-139〉

(2) 이을환

{ ㉠ 助 動 詞 : ① 피동 ② 진행 ③ 종결 ④ 봉사 ⑤ 시행 ⑥ 강세 ⑦ 보유  
(13 종) ⑧ 사역 ⑨ 부정 ⑩ 가식 ⑪ 당위 ⑫ 과거 기회 ⑬ 시인  
㉡ 助形容詞 : ① 부정 ② 시인 ③ 희망 ④ 추측 ⑤ 가치 ⑥ 상태 ⑦ 과거  
(7 종)

※ 조동사는 이명권의 분류보다 이을환은 “과거 기회”가 더 있다.

〈이을환 : 최신문법, pp. 58-66〉

※ 하위 분류를 하지 않고 主用言과의 관계성을 주로 기술한 교과서는 김민수, 이송녕, 이희승, 정인승, 강복수 등이다. 그리고, 허용도 助動詞 17종과 補助形容詞 3종을 들었으나 의미상 예시에 불과한 것이다.

## 2. 問題點

(1) 助動詞나 補助形容詞의 분류는 의미 범주에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생기게 되나, 제 I 류와 제 II 류는 비교적 공통성을 가지고 분류되어지고 있다.

(2) ‘過去機會’의 뜻이 있는 ‘변하였다’의 品詞規定이 두 갈래다. ‘補助形容詞’로 보는 저자는 2명(이을환, 이명권)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助動詞로 보고 있다.

## 3. 提 案

(1) 助動詞, 補助形容詞의 하위 분류는 굳이 체계화할 필요가 없고, 主用言과의 형식적 관계성을 구조화하고, 그 성격을 밝히는 것이 문법 지도상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2) ‘변하였다’는 의미 범주상 助動詞로 처리한다. 이것이 語形變化의 形態上으로는——命令形, 請誘形, 現在進行形 動詞變化에 제한을 받는다——動詞範疇(형태적)과 一致하지 않는다. 그러나, 助動詞는 主動詞에 대한 보조적 동작 양태에 따라 의미 범주상 어형 변화에 제한을 받는다. ‘부정’ ‘당위’ 등에 ‘명령’ ‘권유’ 등의 語形이 의미상 있을 수 없고, ‘過去機會’에 ‘現在進行形’의 語形이 의미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助動詞는 形態 변화로 품사 규정을 할 수는 없다. 곧, 제 I 류형의 분류가 바람직하다.

(3) 다만, ‘체하다’ ‘양하다’ ‘뒹하다’는 두 개의 단어로 분리될 가능성이 많다. 곧, ‘먹은 체(를)한다’와 같이 ‘체+한다’의 開放連接(open juncture)이 오고, 또한 ‘먹은 체’는 ‘맺은 것’과 동일한 連接 현상이 온다. 따라서 ‘체, 양, 뒹’ 등을 不完全名詞로, ‘하다’를 助動詞로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補助用言 앞에서는 반드시 冠形語가 온다. 그런데, 冠形語는 體言 앞에서만 수식하게 되는데, ‘체하다’ 류를 用言으로 볼 경우에도 冠形語가 用言 앞에 와서 수식하는 격이 되어 文法理論上으로도 모순이 일어난다. 그러나, 여기서는 종래의 관례대로 補助用言으로 유보해 놓는다.

## § 1 1. 文章成分의 종류

## 1. 內容分析

(1) 종래의 일반적인 경향이었던 7종의 成分——主語, 敘述語, 目的語, 補語, 冠形語, 副詞語, 獨立語——설정 이외에 接續副詞를 接續語로 새로 설정한 유형이 있으며(제Ⅰ류),

(2) 接續副詞를 독립어에 포함시킨 유형(제Ⅱ류 A형), 그리고 副詞語에 포함시킨 유형(제Ⅱ류 B형)이 있다(제Ⅱ류형).

(3) 그리고 이색적인 것은, 補語는 인정하지 않고 副詞語에 해당하는 성분을 對備語, 位置語, 方便語, 引用語(인용어를 보어로 잡는 체계도 있음) 등으로 副詞語와 병립시켜 새로 설정하여 10 성분으로 나눈 유형이 있고(제Ⅲ류형)

(4) 補語를 인정하지 않고 6成分——主語, 敘述語, 目的語, 冠形語, 副詞語, 獨立語——으로 나눈 유형이 있다(제Ⅳ류형)

위 類型의 內容을 자세히 分類해 보면 다음과 같다.

Ⅰ 제Ⅰ류형: 이승녕, 이명권(A형), 김민수, 이인모(B형), 이희승(C형)

(1) A형: 이승녕, 이명권

文章成分 { 根幹成分: 主語, 敘述語, 目的語, 補語  
(주성분)  
附屬成分: 冠形語, 副詞語  
獨立成分: 獨立語, 接續語 } 8成分

(2) B형: 김민수, 이인모

① 김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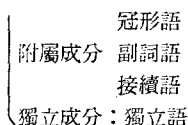
文章成分 { 普通成分 { 根幹成分: 主語, 敘述語, 補語, 目的語  
枝葉成分: 冠形語, 副詞語, 接續語  
特殊成分——獨立成分, 獨立語

〈김민수(이기문): 표준 문법, p. 7〉

② 이인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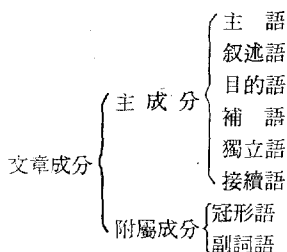
文章成分 { 主成分 { 主語  
敘述語  
目的語  
補語





〈이인모 : 새문법, pp. 14-17〉

### (3) C형 : 이희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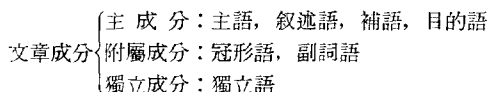
〈이희승 : 새문법, p. 160〉

※ 接續語를 A형(이승녕, 이명권)은 獨立成分으로, B형(김민수, 이인모)은 附屬成分으로, C형(이희승)은 주성분으로 각각 달리 처리하고 있다.

② 제Ⅱ류 : A형은 최현배, 이을환, 강운호, 양주동이요, B형은 정인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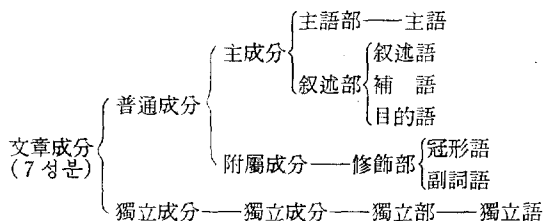
(1) A형 : 최현배, 이을환, 강운호, 양주동

#### ① 최현배



〈최현배 : 새로운 말본, pp. 114-119〉

#### ② 이을환



※ 접속 부사는 독립 성분으로 처리

〈이을환 : 최신 문법, p. 108〉

## ③ 강운호

文章成分 { 主成分 : 主語, 目的語, 補語, 敘述語  
 附屬成分 : 冠形語, 副詞語  
 獨立成分 : 獨立語

※ 접속부사가 말 첫머리에 올 때는 독립어로 처리

〈강운호 : 정수분법, p.124〉

## ④ 양주동

文章成分 { 一般成分 { 主成分 : 主語, 叙述語, 目的語, 補語  
 附屬成分 : 冠形語, 副詞語  
 特殊成分——獨立成分 : 獨立語

※ 비성분어——접속어

예) : 술 및 담배는 몸에 해롭다.

‘및’은 독립된 語形을 지니므로 單語라 할 수 있으나, 성분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接續語라고 할 수 있으나 성분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즉 接續語는 接續格이 成分格이 될 수 없듯이, 하나의 成分語가 될 수 없고 앞뒤의 말에 포괄되는 非成分語다.

〈양주동(유목상) : 새문법, pp.49-50〉

## (2) B형 : 정인승

文章成分 { 主要成分 { 主語(임자말)  
 叙述語(풀이말)  
 目的語(부림말)  
 補語(기움말)  
 (7 성분) { 附屬成分 { 冠形語(매김말)  
 副詞語(어찌써)  
 獨立成分——獨立語

※ 접속부사를 부사어에 넣음.

〈정인승 : 표준문법, pp.7~8〉

③ 제Ⅲ류형 : 허응이 이에 속하며, 文章成分은 叙述語, 主語, 目的語, 冠形語, 副詞語, 位置語, 方便語, 對備語, 引用語, 獨立語 등의 10 成分으로 분류.

※ 학자에 따라서는 位置語, 方便語, 對備語, 引用語를 모두 副詞語에 넣어버리는 일도 있다. 그렇게 되면 體言의 格體系에 있어서도 이 네 가지 格

이 없어지고 이것들이 모두 副詞格에 들게 되는 것이다.

※ 접속부사를 독립어에 넣음.

〈허용: 표준문법, pp. 108-109〉

① 對備語: 비교나 함께 함의 뜻을 나타내는데, 그 됨됨이는 主語, 目的語와 비슷하며, 對備格助詞의 의지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체언으로 이루어진다.

예): ① 내생각은 너와 다르다.

② 나하고 가자.

③ 그는 꽃처럼 아름답다.

④ 걷기보다 빠르다.

⑤ 당신도 아시다시피 세월이 좋지 않아서.

② 位置語: 空間이나 時間에 있어서의 위치를 표시하나, 때로는 原因도 표시, 位置의 助詞의 의지를 받는다. 體言으로 된다.

예): ① 김군에게 갖다 주어라.

② 부산서 왔다.

③ 뜰에 나가 놀아라.

③ 方便語: 手段, 方法, 資格을 나타내나, 때로는 方向도 나타낸다. 體言으로 이루어진다.

예(: ① 낮으로 풀을 베다.

② 빨리 학교로 가자.

③ 그이는 우리들의 대표로서 회의에 참가했다.

④ 引用語: 인용을 나타내는 助詞 ‘고, 라고’에 이끌린 말은 引用語가 된다. 句, 節로 이루어진다.

예): ① ‘나는 가겠다’라고 말했다.

② ‘저는 복동이’라고 부릅니다.

〈허용: 표준문법, pp. 119-125〉

#### ④ 제Ⅳ류형: 강복수, 이은정

##### (1) 갖복수

文章成分 { 主成分: 主語, 敘述語, 目的語  
(6 성분) { 附屬成分: 冠形語, 副詞語  
                  獨立成分: 獨立語

※ 접속부사의 성분은 밝히지 않고 있다.

〈강복수(유창균): 문법, pp. 14-16〉

## (2) 이은정

文章成分 { 主成分: 主語, 敘述語, 目的語  
 獨立成分: 冠形語, 副詞語  
 獨立成分: 獨立語

※ 문 연결의 접속부사는 독립어로 처리됨.

〈이은정: 우리문법, pp. 125-130〉

〔표 3〕 文章成分의 종류 비교

류	성 분		주 어	서 술 어	목 적 어	보 어	관 형 어	부 사 어	독 립 어	접 속 어	비 고
	저	자									
제Ⅰ류	이승녕, 이명권, 김민수, 이인모, 이희승		○	○	○	○	○	○	○	○	8성분
제Ⅱ류 (A형)	이을환, 양주동, 최현배, 강윤호		○	○	○	○	○	○	○	독립어	7성분
제Ⅱ류 (B형)	정 인 승		○	○	○	○	○	○	○	부사어	7성분
제Ⅲ류	허 응		○	○	○	×	○	○	○	독립어	10성분
제Ⅳ류	강 복 수		○	○	○	×	○	○	○	?	6성분
	이 은 정		○	○	○	×	○	○	○	독립어	6성분

※ 허응은 위 표의 6 성분 이외에 ‘引用語, 位置語, 方便語, 對備語’가 있다(10 성분).

## 2. 問題 點

- (1) 接續副詞를 接續語의 새로운 성분으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
- (2) 接續副詞를 接續語로 다루지 않을 경우, 副詞語나 獨立語나 의 문제
- (3) 補語 設定의 여부 문제

## 3. 提 案

(1) 接續副詞는 文構成要素로서의 가치성은 없으나, 接續語의 성분 설정은 학교문법에서의 문장 분석(이해)상 효용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接續語를 설정하고 이에 수반해서 接續副詞를 接續詞로 品詞設定을 하면, 成分과 品詞와의 관계가 단순화된다.

(2) 接續語 成分을 세우지 않을 경우는, 接續副詞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꽃 그리고 나비. 꽃이 피고 또 나비도 난다. 等位接續) 文頭의 경우만 獨立語로 처리한다.

(3) 補語를 설정하고, 그 범위는 다음 항목(12. 補語의 범위)에서 언급한다. 補語의 설정은 總主語(大主語)에 대한 直接主語(小主語)의 두 가지 문법적 성격의 다른 점과 부속 성분으로서의 부사어가 아닌 限定語(필수적 문 구성요소)의 기능이 있는 데서 일어난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본다.

① 補語와 直接主語(小主語)의 구분이 힘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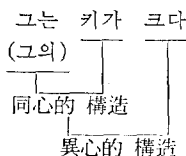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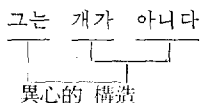
- a. 그는 개가 아니다 <보어>
- b. 그는 키가 크다 <직접주어>

② 補語와 副詞語의 구분이 애매한 점으로

- a. { 그것은 꽃과 같다 <보어>  
그는 그를 아내로 삼았다 <보어>
- b. { 나비가 꽃에서 잠을 잔다 <부사어>  
나비가 꽃을 질으로 나른다 <부사어>

위의 보어 성분을 문법 지도상 ①은 直接主語로 ②는 副詞語로 처리되면 체계 설명의 단순화는 이루어진다. 그러나, ①의 a는 總主語와 直接主語의 통사적 관계는 異心의 構造(exocentric construction)이나, b의 그 관계는 同心의 構造(endocentric construction)다.

[내면 구조]



이렇게 구조적 차이가 있고, ②의 경우는 a 성분이 文構成上 必須的(基幹成分)이고, b는 隨意的(枝葉成分)이다. 文構成에서 뺄 수 없는 이 基幹成分을 副詞語로 처리하면, 枝葉成分——이것이 빠져도 문 구성이 가능한 성분——으로서의 副詞語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어 설정을 한다.

cf. 김민수: 「국어 문법론」(일조각, 1971. 9), pp. 92-100.

(4) 文章成分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 根幹成分(주성분) : ① 主語 ② 敘述語 ③ 目的語 ④ 補語  
 文章成分 { 枝葉成分(종성분) : ⑤ 冠形語 ⑥ 副詞語  
                   特殊成分 : ⑦ 獨立語 ⑧ 接續語

cf. 필자: 통사론, 「국어학신강」, pp. 229-238.

## § 12. 補語의 範圍

## 1. 內容分析

(1) 補格助詞 ‘① 이(가), ② 과(와)’ 등이 體言 또는 用言의 명사형에 붙어 不完全自動詞나 不完全形容詞의 서술을 보충하는 경우

- ① 물이 얼음이 된다(불완전 자동사의 서술 보충)
- ② 이것은 개가 아니다(불완전 형용사의 서술 보충)
- ③ 이것은 바늘과 같다(불완전 형용사의 서술 보충)

만을 補語로 잡은 主語補充語에 국한한 것이 있고(제Ⅰ류: 강윤호, 이인모, 이을환, 이명권)

(2) 위의 主語 補充의 범위를 넓혀 ‘① 으로(로) ② 이라고(라고)’가 體言에 붙어 不完全他動詞의 敘述을 보충하는 경우

- ④ 힘이 센 사람을 잘사라고 부른다.
- ⑤ 나는 김군을 친구로 삼았다.

目的語 補充語에까지 범위를 넓힌 것도 있다(제Ⅱ류: 이희승, 이승녕, 정인승, 양주동, 김민수).

(3) 그리고 ‘① 이다, ② 아니다’의 잡음씨의 서술을 보충하는 것만 보아도 잡은 것이 있고(제Ⅲ류: 최현배)

(4) 전혀 補語를 인정하지 않는 체계가 있다(제Ⅳ류: 강복수, 허웅, 이은정).

[표 4] 補語 범위 비교표

유 형	보어의 범위 —보어가 되는 조건—	저 자
제Ⅰ류	① 이(가) ② 과(와)만의 조사가 붙는 말	강윤호, 이인모, 이을환, 이명권
제Ⅱ류	① 이(가) ② 과(와) ③ 으로 ④ 이라고(라고)의 조사가 붙는 말	이희승, 이승녕, 정인승, 양주동, 김민수
제Ⅲ류	① 이다 ② 아니다에 대한 보충어	최현배
제Ⅳ류	보어를 인정하지 않는 체계	허웅, 강복수, 이은정

## 2. 問題點

(1) 補語設定을 하되 ① ‘이다, 아니다’에 대한 補充語에 국한한 것(제Ⅲ

류:최현배), ② ‘이(가), 과(와)’의 助詞만 붙은 말에 국한한 것(제Ⅰ류:5명) ③ ‘이, 과’ 외에 ‘으로(로), 이라고(라고)’의 助詞가 붙는 말까지 범위를 넓힌 것(제Ⅱ류:4명)으로 3종의 체계로 나누어진다. 곧, 補語의 範圍가 문제점이 된다.

(2) 補語를 인정하지 않는 體系가 있다(제Ⅳ류:허웅, 강복수, 이은정). 곧, 補語設定의 여부가 문제된다.

### 3. 提 案

(1) 補語의 範圍는 제Ⅱ류형 체계를 채택한다. 이것은 전항(11, 문장 성분의 종류)에서 언급한 ‘보어 설정의 근거’가 전제되어 있다.

- 제Ⅱ류형 體系
- ① 이(가): 구름이 비가 된다. 사람이 신이 아니다.
  - ② 과(와): 구름이 슬과 같다.
  - ③ 으로(로): 내가 그이를 친구로 삼았다.
  - ④ 이라고(라고): 국민들이 그분을 국부라고 부른다.

補語의 範圍規定은 ‘基本文型設定’과 ‘補格助詞의 種類’와 일치되어야 前後體系(문법 체계)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2) 補語設定의 근거는 전항(11, 문장 성분의 종류)에서 제시하였다.

## § 13. 基本文型の 設定

### 1. 內容分析

(1) 根幹成分만으로 된 基本文型(제Ⅰ류)

- A형: 정인승, 양주동, 이승녕
- B형: 김민수
- C형: 최현배

(2) 根幹成分과 附屬成分으로 된 基本文型(제Ⅱ류: 강운호)

(3) 根幹成分(보어 성분은 빠진 것)과 附屬成分 및 獨立成分으로 된 基本文型(제Ⅲ류: 강복수).

(4) 根幹成分과 附屬成分 및 獨立成分과 其他로 된 기본 문형(제Ⅳ류: A형은 이을환, B형은 이명권)

(5) 敘述語의 품사적 성질에 의해 분류한 基本文型(제Ⅴ류: 최현배)

이상 5유형으로 분류되고, 허웅, 이은정, 이인모, 이희승은 기본 문형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표 5] 基本文形 設定의 比較

기본 문형	저자별	제 I 류		제 II 류	제 III 류	제 IV 류		제 V 류
		A형: 이승녕, 정인승, 양주동	B형: 김민수	강 윤 호	강 복 수	A형: 이을환	B형: 이명권	최 현 배
1		주어+서술어	주+서	주+서	주+서	주+서	주+서	주+보+서 (무엇이 무었이다)
2		주어+목적어+서술어	주+보+서	주+목+서	주+목+주	주+보+목+서	주+목+서	주+서 (무엇이 어떠하다)
3		주어+보어+서술어	주+목+서	주+보+서	관+주+서	관+주+서	주+보+서	주+서 (무엇이 어찌한다)
4		주어+목적어+보어+서술어	주+서+서	주+부+서	주+관+목+서	주+부+서	관+주+서	주+목+서
5			주+보+서+서	관+주+서	관+주+관+목+서	관+주+부+서	주+부+서	
6			주+목+서+서		주+부+서	독+문	독+문	
7						관+주+관+목+부+서	문+접속어+문	
8					독립어+주+서			

## 2. 問題 點

- (1) 기본 문형 설정의 근거(기본 문형의 개념)에 혼선이 있다.
- (2) 따라서, 다섯 가지 유형의 문형 설정으로 갈라졌다.
  - ① 근간 성분 위주로 책정된 문형(제 I 류)
  - ② 근간 성분과 부속 성분으로 된 문형(제 II 류)
  - ③ 근간 성분, 부속 성분, 그리고 독립 성분으로 된 문형(제 III 류)
  - ④ 제 IV 류형에도 “독립 성분+문”을 포함한 문형(제 IV 류)
  - ⑤ 서술어의 품사적 성질에 의해 분류한 문형(제 V 류)

## 3. 提 案

- (1) 基本文형의 개념은 다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① 국어의 모든 構文을 죄다 포괄할 수 있는 기본적인 構文形式, 곧 最小縮小文의 형식이고, 그의 構文은 擴大文의 形式이다.



② 言語學習上的 효용적인 方面으로 세운 文의 基本 형식, 따라서 ①의 개념을 근거로 해서 세울 것이나, ②의 趣意를 참작해서 설정되어야 한다.

基本文型 설정은 제 I 류처럼 根幹成分으로 된 構文形式으로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 ① 主語+敘述語 (봄이 온다)
- ② 主語+目的語+敘述語 (농부가 씨를 뿌린다)
- ③ 主語+補語+敘述語 (물이 얼음이 된다)
- ④ 主語+目的語+補語+敘述語 (나는 그를 친구로 삼았다)

그리고, 從成分(附屬成分) 및 特殊成分(獨立語, 接續語)을 제 2 차적으로 설정한다. 이 成分들이 포함된 構文을 基本文型으로 잡으면, 수많은 문형이 성립될 수 있기는 하지만, 문법 지도의 효용상 基本文型의 擴大現象으로 文型의 개념에 넣어 체계화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2 차적 文型이 성립된

- ⑤ 冠形語+體言 {
  - a. 冠形語+主語(체언)+敘述語
  - b. 主語+冠形語+敘述語(체언)
  - c. 主語+冠形語+冠形語(체언)+敘述語
- ⑥ 副詞語+用言 {
  - a. 主語+副詞語+敘述語(용언)
  - b. 副詞語+主語(용언)+敘述語
  - c. 主語+副詞語+副詞語(용언)+敘述語
- ⑦ 獨立語+文
- ⑧ 文+接續語+文

cf. 필자: 통사론, 「국어학신강」, pp. 248-250. p. 259.

## § 14. 文章의 종류

### 1. 內容分析

文章의 분류는 그 構造와 叙法에 따라 나누고 있다. 叙法에 의한 分類는 終結敘述形 語尾 分類에 대체로 의존하고 있다. 여기서 文의 構造上 分類를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1) 제 I 류

- { A형: 양주동, 이명권, 강윤희, 김민수, 이승녕
- { B형: 이을환, 정인승, 이인모, 이은제

- 文章(構造上) {
  - 1. 單 文
  - 2. 重 文
  - 3. 複 文
  - 4. 混成文

## &lt;단 서&gt;

① 包有文을 단문으로 본 것은 A형, 複文으로 본 것은 B형으로 한다.

② 정인승, 이인모는 複文을 羅列複文(※ 連合複文)과 成分複文(※ 包有文)으로 분류함.

③ 이을환은 複文을 包有文과 連合文으로 나누고 있다.

## (2) 제Ⅱ류: 강복수

- 文章 { 1. 單 文  
2. 重 文  
3. 複 文  
4. 混成文  
5. 單語文

※ 단 包有文은 複文으로 보고 있다.

## (3) 제Ⅲ류: 허 응

- 文章 { 1. 單 文  
2. 對等文(※ 重文)  
3. 從屬文(※ 複文) ※표는 筆者註

※ 단, 包有文은 從屬文으로 보고 있다.

## (4) 제Ⅳ류: 최현배

- 文章 { 單 文  
複 文 { 包有文  
竝立文(※ 重文)  
連合文(※ 複文)

※ 이회승은 분류하지 않음.

[표 6] 文章의 構造上 分類의 比較

항 목		저 자 별		제 I 류		제 II 류	제 III 류	제 IV 류
		A형: 5명		B형: 4명		강 복 수	허 응	최 현 배
문 장 의 종 류	單 語 文					○		
	單 文	○	○	○	○			○
	重 文	○	○	○	○			○
	複 文	○	○	○	○			○
	混 成 文	○	○	○				

危有文	單	文	○				
	複	文		○	○	○	○

## 2. 問題點

(1) 문장의 성질상 종류는 基本文의 叙法의 樣態를 분류하는 것이므로, 그 종류는 終結形語尾分類와 일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취급된 교과서는 5종이다).

(2) 文章의 構造上 分類는 네 가지 類型으로 나누어지나, ① 混成文의 책정 여부와 ② 包有文이 단문인가, 복문인가의 귀속이 문제된다.

## 3. 提 案

(2) 문장의 성질상 종류는 기본문 叙法上的 樣態의 변화이므로, 문장 분석상 중요하다. 그리고 문장 이해를 위한 학교 문법 지도상으로도 중요하므로 終結叙述形 語尾分類와 일치시켜 분류해야 될 것이다(종결 서술형 어미 분류는 5. 어미 분류를 참조할 것).

(2) ① 문장의 구조상 분류는 다음과 같이 나누고,

文章(구조상) { 1. 單 文  
2. 重 文  
3. 複 文

混成文은 等位的인 構文으로 된 混成文을 重文으로 하고, 從屬的인 構文으로 된 混成文을 複文으로서 처리한다(I.C 분석 적용).

a. 봄이 오면, 꽃이 피고 ;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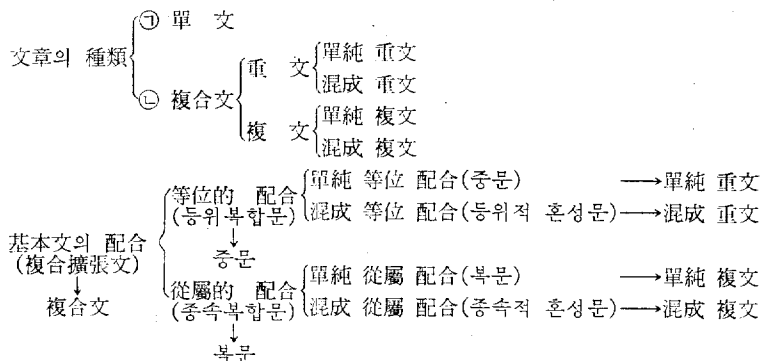
複文形式(중속적)                      複 文 形 式  
└────────────────────────────────┘  
等位的 混成文(→중문)

b. 들도 좋고, 바다도 좋지마는 ; 산이 더욱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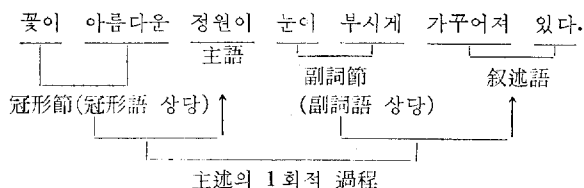
重文形式(동위적)                      └────────────────┘  
從屬的 混成文(→복문)

위와 같은 문장의 구조는 기본문의 배합 형식으로서(문장 배합은 기본문의 반복적 확장 방식의 하나) 그 배합 유형을 等位的 配合(중문)과 從屬的 配合으로 나누는 것이 논리적이다. 따라서, 복합문의 위치와 그 분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包有文은 單文으로 처리한다. 包有文은 成分節을 포유한 구조로서, 그 成分節은 文構成要素로서의 한 성분의 구실에 등가(等價)한다. 成分節包有는 基本文의 배합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성분절은 文內構造의 한 構成分子 (複合成分)로서의 가치밖에 없다. 따라서, 包有文의 主述關係는 1回的이다.



重文이나 複文은 複合文으로서 主述關係가 2回的이다(두 主述의 상호 관계는 文外構造다).

a. 하늘은 높고, 땅은 넓다.

主語    敘述語    主語    敘述語

主述의 等位的 2회 過程

b. 눈이 내리지마는 날씨는 따뜻하다.

主語    敘述語    主語    敘述語

主述의 從屬的 2회 過程

cf. 필자: 통사론, 「국어학신강」, pp. 266-268. 本文. p. 313.

## 15. 結 語

文教部가 檢認定한 인문 고등학교용 문법 교과서 13종을 대상으로 그 文法體系를 조사·분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文法理論上으로나, 教育上으로 문제가 되는 14개의 文法事項을 추출하여, 그에 대한 問題點 解決方案으로서 試案을 제시해 보았다.

文法理論上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마땅히 그 이론적 근거의 보편 타당도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고 그것이 이론적 전개가 충분히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만한 이론적 구명의 여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본고가 지향하고 있는 학교 문법 본래의 목적도 아니다. 여기서는 學校文法の 혼란된 체계를 教育的 効用面에서 어떻게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중심으로 모색해 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學校文法の 전체계에 이론적 모순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文法理論의 체계적 통일을 전제로 하면서, 教育的 効用性에 입각하여 統一方案을 모색해 본 것이다.

教育的 効用性은 보다 많은 의견과 文法指導 實踐을 통한 측정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그런 점이 또 부족하다. 앞으로 이 과제는 계속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제와 아울러서 앞으로 조사 연구해야 할 學校文法論의 과제는

- (1) 文法指導 內容의 범위와 그 系列化 作成
- (2)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도하느냐 하는 方法論 樹立 등이다.

이와 같은 課題解決의 先行作業이 學校文法の 用語와 體系의 安定 및 그 統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이런 拙案을 내 보는 것이다.

〈1973. 10〉